



16년

아·테 마스터스 '전북 관광 마중물'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음 2월 13일) 제27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매일

## 전북도내 4개 산단, 미래형으로 변신

정부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군산 국가·익산 제2일반·완주 과학·새만금 국가 등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 글로벌 거점 도약이 목표 2024년까지 110개사 산업구조 개편·160건 기술혁신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내 4개 산업단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면·3면)

전북도는 24일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북도를 포함해 전국 5개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이미 2020년도에는 1차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 광주(광주) 등 5곳이 선정된 바 있으며,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 만족도 제고 등을 목표로 이번 2021년에 추가로 5개소를 선정할 것이다.

올해에는 당초 8개 지자체가 신청해 지난 3월 15일 발표평가를 거쳐 이날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전북을 포함한 5개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가 신청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군산·익산·완주의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이 목표다.

군산 국가산단은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로서 거점산단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 과학산단은 수소(전기) 동력부품 공급기지,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 상용모빌리티 실증기지로 특화돼 각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대상 산업단지는 그동안 3회에 걸친 수요조사와 지역여도, 산학연 집적도, 통합발전 상호연계성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도는 실효성있는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산단대개조 대응 TF 및 지역자문단을 구성한 뒤 수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대개조가 이뤄지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4일 군산, 익산, 완주, 새만금 등 전북도내 4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전북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글로벌 거점 계획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오택림 익산부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일준 군산시청, 송하진 도지사,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김홍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장, 노상훈 캠퍼스융합기술원장.

도는 현재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 도내 제조업 출하액의 21%, 종사자의 19%를 차지하며 현대차, 타타대우, 명신과 같은 앵커기업들이 입주해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전북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 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혁신과 인력양성,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전환을 30%, 수출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지역인 및 청년고용 8%p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단 혁신계획은 뉴딜정책과도 연계, 추진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으로 전북도가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북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되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연관기업의 성장으로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를”

전교조 전북지부 “공교육 정상화 우선 해결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안을 즉각 법제화하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 수는 전체 9,205개 학급 중 6,006개 학급으로 약 66%에 달하며, 특히 중학교는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교조가 지난 17일~24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밀학급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 법제화에 초·중·고 교사의 99.2%가 찬성했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위기학생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위기관리단' 구성·운영  
위프로젝트 상담활동 내실화 강화·병원형 센터도

'게이트키퍼'란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고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울러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시간 이상, 교원은 연간 4시간 이상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한다. 학부모는 학기초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생명지킴 학교폭력,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 보급했다. 초·중·고 50개교를 대상으로 마음치유·생명지킴 운영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도 운영한다. 자살 시도 및 자해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을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원형 위(Wee)센터를 운영한다. 정서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학생에게 최대 1개월 이내로 상담-진단-전문적 심층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건강하게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병원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생, 학부모는 전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예방, 상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해 가정형 위(Wee)센터도 운영한다. /장은성 기자

## 재해·가축 질병 인한 피해농가 장기 용자지원

도, 개인 1억원까지 신청 가능

전북도가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장기 저리의 경영회생 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온, 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최대 8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가는 피해조사대장, 살처분 명령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시·군(농정부서)에 농림수산발전기금 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에게 신속한 영농재해를 위한 농자재구입, 입식지원 등의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어가 및 농업법인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업·어업 관련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공원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 임실군의의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옥정호 봉어섬(외앗날)  
천담구담마을  
관촌 사선대

임실군의의회